고등어·갈치·오징어 '금값'

바다수온 저하 어획량 줄어 가격 65~100% 급등

바닷물 수온 저하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값이 뛰고 있다.

4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생고등어(국내산) 한 마리가 4980원에 팔려 지난해 2560원보다 배 가까이 올랐다.

1년 전 3450원에 판대됐던 갈치(대·1미)도 65%나 급등해 5300원에 팔리고 있다.

갈치는 제주도 성산포에서 1상자(20~25마리)가 16만~19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는 18만~22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역에 저온현상이 나타나면서 갈치와 고등어의 어군 형성이 되자 않아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난류성 어종으로 여름이 제철인 오징어는 낮은 해수 온도로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60% 가량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물오징어(중품·1마리) 값은 4일 현재 1930원으로 1년 사이 834원(76%)이나 올랐다.

이 같은 상승은 올 동해안에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2~3도 낮은 냉수대가 발생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산지인 포항 구룡포에서도 지난해 1만6000~1만8000원에 거래되던 오징어 1상자(20마리)가 2만7000~2만9000원으로 60% 이상 올랐다.

식자재의 주원료인 원양오징어(65마리)도 지난해 3만5000~4만원에서 올해 6만~6만5000원으로 급상승해 중국집 등 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오징어는 어획량이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고등어와 갈치는 어획량이 조금씩 늘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름 비타민' 파프리카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3일 1층 농산 매장에서 '여름철 비타민'으로 불리는 파프리카를 선보였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레몬과 토마토보다 2~5배나 많이 함유돼 있어 기미, 주근깨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3개 1990원. 〈광주신세계 이마트 제공〉

막걸리도 품질인증 빠르면 내달부터

빠르면 9월부터 막걸리 등 각종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술 품질인증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막걸리 등 대표적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뒤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을 8월 중순께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전통주 대표주종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품질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품질인증 효과 등을 감안해 증류식소주, 일반 증류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시장 세계 10위

1인당 보험료 1890달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는 전세계 10위지만 1인당 보험료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25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계 2위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전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보험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보험료 규모는 전년보다 0.8% 증가한 920억달러로 2008년에 이어 세계 10위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위는 1조1397억달러의 미국이었으며, 일본(5060억달러), 영국(3092억달러), 프랑스(2831억달러), 독일(2384억달러), 이탈리아(1694억달러), 중국(1630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 보험료는 574억달러로 세계 8위에 올랐으나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손해보험 보험료는 345억달러로 14.2% 증가해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보험료 규모를 뜻하는 보험밀도는 우리나라가 1천890달러로 2008년 24위에서 한 계단 내려간 25위에 올랐다. 이는 OECD 평균 2천808달러보다 918달러나 모자란다. /연합뉴스

맛집·여행정보… 휴대전화로 본다

광주시·중기청 앱 개발

광주·전남의 맛집과 지역축제, 취업정보, 여행정보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알아볼 수는 없을까. 스마트폰 안에 그 답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4일 광주와 서울, 대구, 충도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주민 편익을 증진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맛집(전통주·맛집)과 문화(슬로시티·문화수도·섬여행), 취업(구인구직), 정책(입찰·사업 공고), 교육(친환경농업·LED용어사전·광주영어방송 송출), 우수기업 홍보 및 제품 마케팅, 지역축제(하계U대회·F1대회·여수엑스포) 정보 등 7개 분야를 선보인다.

중기청은 광주 7개 등 25개 분야의 앱 개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앱 경진대회'를 개최해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참가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1월19일까지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빅맥' 1개값 韓 2.82달러·美 3.73달러

원화가치 24% 저평가… 조사 44개국 중 24번째

우리나라의 원화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조사한 각국의 '빅맥지수'를 비교한 결과, 달러화에 비해 24%나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빅맥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2.82로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24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에서 맥도날드의 '빅맥' 1개 가격(3400원)이 지난달 21일 환율(1204원·달러) 기준으로 2.82달러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빅맥지수가 낮을수록 달러화에 비해 해당 통화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빅맥 1개의 값은 3.73달러로, 빅맥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원화의 적정환율은 달러당 911원으로 평가됐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빅맥 한 개 가격이 무려 7.2달러에 판매됐다. 이는 한국에서 파는 빅맥 가격의 2.5배에 달한다.

이어 스웨덴(6.56), 스위스(6.19), 브라질(4.91), 덴마크(4.90)가 빅맥이 가장 비싼 5개국에 꼽혔고, 빅맥을 가장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곳은 태국(2.17), 중국(1.95), 홍콩(1.90), 스리랑카(1.86), 우크라이나(1.84)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격으로 빅맥을 사먹을 수 있는 국가들에는 아랍에미리트(2.99), 폴란드(2.60)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빅맥 지수=각국에 진출한 맥도날드 햄버거의 대표 메뉴인 '빅맥'의 가격을 비교해 각국 통화의 구매력과 환율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기마다 한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할인·결제·적립 '원스톱'

KT, GS 편의점 등서 '쇼터치' 시범서비스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기능과 다양한 멤버십카드, 할인쿠폰 등을 한 데 담아 쓸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포켓 서비스가 도입된다.

KT는 이달부터 전국 GS-25 편의점 4100여곳과 수도권 1100여개 GS주유소에서 휴대전화 하나로 신용카드 결제뿐 아니라 멤버십 적립과 쿠폰할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쇼터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유심(USIM)에 다양한 멤버십 카드와 쿠폰, 신용카드, T머니 등을 저장, 상품 결제시에 간편하게 쿠폰 할인과 멤버십 적립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

KT 관계자는 "여러장의 신용카드는 물론, 할인카드와 쿠폰을 각각 50장까지 동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사람들이 꿈꿔온 '꿈의 지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T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대 직장인들이 평균 4장의 신용카드와 12장의 멤버십 카드를 보유하며, 성별에 따라 3~7종의 카드를 지갑에 소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쇼터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더 이상 카드 소지를 위해 큰 지갑을 쓰는 불편함이나 분실 등 우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쇼터치는 현재 유심 금융기능을 지원하는 50여종의 KT용 휴대전화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KT는 차세대 유심칩인 NFC 도입과 연계해 이용가능 단말기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신용 5~6등급 저소득자도 오늘부터 미소금융 지원

5일부터 신용등급 5~6등급 저소득자에게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껏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에게만 지원됐던 미소금융 혜택을 5~6등급 저소득자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저소득자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중에서도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000만원 이하로 최근 1년 이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액이 42억2000만원으로 지난 6월(23억2000만원)에 비해 81.9%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